

닛코 국립공원

산악, 호수와 늪, 폭포 습원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자연미와 장엄한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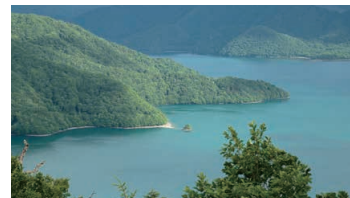
닛코 국립공원은 1934년 12월 4일에 탄생한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공원 구역은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의 세 현에 걸쳐져 있고 총면적은 114,908ha입니다. 공원 구역의 대부분은 나스화산대에 속하는 산악지로 북관동 최고봉인 시라네산(닛코 시라네산)(해발 2,578m)을 비롯하여 예전부터 신앙의 산으로 유명한 난타이산(해발 2,486m),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한 차우스다케산(나스다케산)(해발 1,917m) 등의 산악이 분포합니다.

또한, 이들 산록에는 고원이 펼쳐지고 그중에 화산 활동에 기원하는 호수와 늪, 장대한 폭포, 단풍이 아름다운 계곡이 색깔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신사와 불각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건조물과 그것을 둘러싼 자연 경관과 멋진 융합을 볼 수 있습니다. 닛코 국립공원은 수도권에서 철도나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손쉽게 본격적인 자연 및 역사 문화와 친근해질 수 있는 장소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지정	1934년 12월 4일
면적	114,908ha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바다나 강, 물이 있는 풍경을 즐긴다



Lake Chuzenji



Yudaki Falls



산이나 식물을 즐긴다



Mt. Nantai



Kegon-no-taki Falls



문화 및 생활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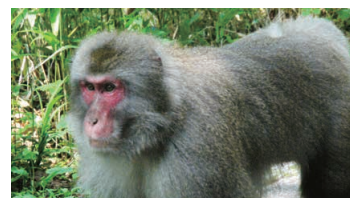
British Embassy Villa Memorial Park



Italian Embassy Villa Memorial Park



야생 생물을 만난다



Japanese Macaque



Japanese snipe (Wild Bird of Wetlands)

일정

역사적 건축물과 네이처 스폿을 탐방하고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을 접한다

닛코 국립공원은 일본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국립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공원 안에는 닛코 도쇼구(동조궁) 및 주젠지 호수, 게곤노타키 폭포 등의 명소 이외에도 명봉과 습원이 접재하여 초여름과 봄에는 싱그러운 신록으로, 가을은 선명한 단풍으로 물듭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과 도쇼구를 비롯한 역사적 건축물이 융합한 경관은 일본 본래의 풍경으로서 친근하며, 세계질 내내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승된 자연과 문화재를 향토애와 함께 지킨다. 닛코만의 경관과 매력은 자연과 역사, 문화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web site



Day 1

세계유산 닛코 도쇼구 (동조궁) 등의 역사적 건축물과 닛코의 명소를 자전거로 달린다

- 9:00 ● 도부닛코역
- 송영차
- 9:30 ● 자전거 투어
- 전동 보조 자전거로 탐방하는 닛코 명소 투어
- 15:30
- 중식 농가의 사골 요리 런치 (상기 투어 내)
- 15:30 ● 버스
- 16:10 ● 도보
- 16:15 ● 호텔(구주시 지구)

Day 2

300 종 이상의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닛코를 대표하는 센조가하라 습원을 하이킹

- 9:30 ● 버스
- 10:30 ● 센조가하라 습원 하이킹 투어
- } 닛코의 핵심부라고 일컬어지는 자연이 풍부한 습지 걷기
- 14:30
- 14:30 ● 버스
- 15:00 ● 유모토 온천 지구 호텔
- 19:30 ● 송영차
- 19:45 ● 오후 닛코 나이트 하이킹
- } 일몰 후에 활동하는 동물 및 밤하늘을 가이드와 함께 관찰
- 21:15 ● 송영차
- 21:30 ● 호텔(유모토 온천 지구)

Day 3

격조 높은 건축을 통해 대사들이 고향의 풍경을 떠올린 닛코의 역사를 접한다

- 8:00 ● 버스
- 9:30 ● 주젠지 호 유람선(크루징)
- } 10:10
- 10:30 ● 대사관 별장 기념공원
- } 역사를 체험하고 근대 건축이 지향한 자연과의 조화를 느낀다
- 12:00 ● 도보(도중 중식)
- 14:30 ● 주젠지 온천
- 15:30 ● 버스
- 도부닛코역

문의

Kanto Regional Environment Office

TEL 048-600-0516

MAIL REO-KANTO@env.go.jp